

비트코인 일주일새 35% ↑… 불안정 금융시장 피난처 되나

코인마켓캡 2.8만 달러 돌파해 제2의 FTX사태 우려 하락세 진정
美 예금 보호 대책 발표하기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 미국 은행들의 잇단 폐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대체 자산인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만750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일주일 사이 35% 넘게 폭등한 상태다. 연초와 비교하면 65% 오른 상태다.

비트코인은 SVB은행이 파산한 지난 10일 1만97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제2의 FTX사태를 우려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하락세는 진정됐다.

이후 지난 12일 2만달러 회복을 시작으로 13일 2만2000달러 14일 2만4000달러 돌파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최근 파산한 미국 실버게이트은행, SVB, 시그니처은행은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된 은행이다. 실버게이트은행의 예치금 80%가 암호화폐 산업 기반이었고,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의 준비금 일부가 예치된 곳이다. 시그니처은행은 예치금 20~30% 암호화폐 산업에 쓰였다.

미국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해 예금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동 성명을 통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Fed와 FDIC의 권고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25만달러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

인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의 조치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금융시장의 위기가 다시금 불거지자 암호화폐시장은 오히려 피난처로 등극하면서 폭등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11개 대형은행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격자 파산을 막기 위해 300억 달러(약 39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JP모건, 씨티그룹,뱅크 오브 아메리카(B of A), 웰스파고는 각각 50억 달러를 제공하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25억 달러를 지원한다.

지난 17일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스위스 2대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에 최대 7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파산과 폐쇄가 전통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이 혼란을 헤쳐 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적 관점이 커

진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시장 위기가 지속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달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들의 연쇄 파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우파드하예(Rakesh Upadhyay)는 “현재 수준과 3만 2000달러 사이에는 큰 저항이 없어 매수 세력은 단기간에 이 거리를 쉽게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격대마저 넘어서면 3만5024달러까지 상승 추세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루나-테라 여파 국내 가상자산 시총 반년만에 4兆 줄어

일평균거래 43% ↓ 예치금 38% ↓
거래업자 영업이익도 42% 급감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루나-테라 사태와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영향이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사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3조원과 비교해 4조원 줄었다.

◆ 하루평균 거래금액 3조원…43% 감소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지난해 하반기

총 거래금액은 545조원으로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3조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총거래금액이 951조원,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5조3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43% 감소했다.

평균 수수료율은 0.16%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매출액은 578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원과 비교해 42% 줄었다.

영업이익은 1274억원으로 같은 기간 80%가량 급감했다. 매출액 감소와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거래업자 종사자수는 총 209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8명 증가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관련 인원은 총 298명으로 같은 기간 32명 늘었다.

◆ 가상자산도 안전 선호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심해지며, 글로벌 10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중도 늘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등 5개다.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상반기와 비교해 11%포인트(p)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중복을 포함해 1362개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9개 줄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625종이

다.

이 중 특정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89종으로 전체 가상자산(625종)중 62%를 차지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34%(132개)가 시총 1억원 이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거래지원이 중단된 가상자산 68종 중 약 70%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 프로젝트 위험으로 중단된 가상자산은 27종, 시장위험으로 중단된 가상자산은 12종이었다.

◆ ‘30대 남성’ 가장 많이 투자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원화예치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

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성 거래자금은 총 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8% 줄었다.

가상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연령대는 30대로, 주로 남성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90만명으로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176만명(28%), 20대 130만명(21%), 50대 99만명(16%)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이용자가 총 427만명으로, 여성 이용자 200만명의 2배를 넘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50만원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으로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이용자는 2만5000명(0.4%), 100만원 미만 보유자는 477만명(76%)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5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는 435만명으로, 대다수 이용자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中 증시 ‘제로코로나’ 시절 회귀… 올해 시총 550兆 증발

차이나 뉴스&리포트

MSCI 중국지수 SVB 사태 등 하락
올 20% 상승폭 반납… 작년말 수준

‘위드 코로나’에 들쭉였던 중국 증시가 ‘제로 코로나’ 시절로 되돌아갔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중국 경제는 지지부진한 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겹쳤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날아간 시가총액만 550조원이 남는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MSCI 중국지수는 지난주 SVB 사태 등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20%에 달했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말 수준으로 주저앉았

다. 지난 1월 27일 정점을 기준으로 날아간 시가총액은 3530억 달러다.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 역시 7주 연속 하락 행진에 작년말 수준까지 하락했다. 24%나 급락하면서 시장에서 700억 달러 안팎이 증발했다.

MSCI 중국 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중국 본토와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 712개의 주가를 따라간다.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63개의 주가를 추적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메이투안 등의 주가는 올해 최고가 대비 적어도 19%, 최대 34%까지 급락했다.

후이전자산운용 다이밍 펀드매니저

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자산은 없다”며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는 중국의 강력한 성장세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모두 악재만 산적해 있다.

미국에서 SVB를 포함해 중소은행 3개가 이미 파산했고, CS의 유동성 위기는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위기설로 번지는 분위기다. 중국 내에서는 자동차 업체와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서 실적 회복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국태군안증권 다이칭 애널리스트는 “경제 회복의 강도와 해외 금융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의구심으로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나서고 있다”며 “일부 업종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한 야외 쇼핑몰을 걷고 있다. /AP·뉴시스

의 경쟁적인 가격 인하와 보조금 전략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움직임도 아직은 인상적인 것이 없다. 신임 리창 중국 총리는 첫 언론 브리핑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피 정책 중 하나인 ‘공동 변경’ 같은 기존 공산당의 주

요 정책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보고서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과 제도화된 조치가 없다는 것은 기업 신뢰도가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